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5일 화요일 음 9월 17일 (9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맑다가 오후들며 구름이 많아 지겠다. 산지와 성산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13-15°C, 낮 최고 기온은 20-22°C로 예상된다. 해상은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월드뉴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색맹... 세계 첫 사례

대만 16세 소녀 '적록색 색맹'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6세의 대만 여학생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후천적 색맹이 된 사례가 세계 최초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14일 자유시보 인터넷판은 대만 남부 가오슝시의 린위안구에 사는 16세의 류모 양이 지난 여름방학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 끝에 후천성 적록색 색맹이 된 사례가 세계 최초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불에 건너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가족들은 그녀가 신호등의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보고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자주 있었던 것을 알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결과 '적록색 색맹'으로 판명됐다.

이 이 학생을 진료한 홍지영 보영과기대 부설 병원 의사는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유발된 '블루라이트로 인해 후천성 적록색 색맹과 암송 감퇴'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언급했다.

당담 의사는 적록 색맹의 발생 원인은 장시간에 걸쳐 블루라이트에 노출돼 망막의 간상세포(명암 감지 세포)와 원추세포(색감 감지 세포)에 영향을 받았고, 망막 세포 부근에 활성산소 등의 물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모 양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매일 10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개학 후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

연합스

한라일보 제주 대표 신문.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

우리사회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최소 143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절벽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0.98)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사회에 대두된 인구절벽은 재정·복지·연금·교육·국방 등은 물론 부동산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성장잠재력을 저하할 초래하고 세수를 감소시킨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는 각종 연금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 인프라는 남아돌고 병역자원은 급격히 감소한다. 일부 지자체의 소멸은 현실이 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2040년 이후 GDP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인구감소는 경제성장의 동력 자체를 잃게 만든다.

한 각 분야의 역량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을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가 떠맡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구 정책의 우선순위는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미래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인구정책에 '감성'을 더해야 한다. 감성이 결여된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출산은 지원책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이므로, 우선 경제성장에 매몰되어 등한시했던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집이 아니라 행복의 추구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결정일 수 있음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하는 삶은 미래와 함께 하는 삶이고,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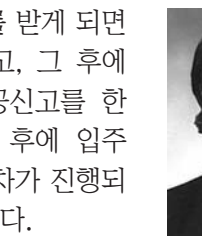
지역주택조합 철저한 내용확인 필요



김병현 제주시 주택과

얼마 전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방영됐다. 저렴한 분양가라는 말에 취해 꼼꼼히 확인을 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합쳐온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공급받고자 조합을 설립하고, 주체가 돼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만큼 시중의 아파트와 다르게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책임 또한 조합원들이 스스로 져야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길



김명순 제주시 용달1동주민센터

제주시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인 환경, 도로,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자생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단속활동을 벌이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작은 시작이지만 나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노력은 장바구니 사용으로 시작했다. 장을 보고 무심코 물건을 넣었던 비닐봉투 대신 언제든지 장바구니를 사용하려고 가방 속에 넣어 다니고 있다. 사무실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종이컵을 없애고, 자판기도 같이 없앴다.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는 탕비실에서 직접 차를 타서 마

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회용 비닐 우산 커버도 자취를 감췄다. 대신에 우산꽂이나 친환경 우산 빗물 제거기를 비치해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사용하던 일회용품 사용을 꼭 끊으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로 휴대와 처리가 간편해 집과 사무실, 심지어 야외에서도 애용하던 종이컵의 유혹을 끊어내기란 정말 어려웠다.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실천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의기에 쉽지 않은 일임을 절실히 느꼈다. TV를 보니 어느 주부는 시장을 볼 때 반찬통을 들고 가서 장에서 산 잔거리들을 반찬통에 담아왔다. 쓰레기가 생기지 않아 좋았고 집에 돌아와 바로 냉장고에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아 보였다. 누군가는 신경도 안쓰는 일을 그 주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말하는 모습에 존경심이 저절로 생겼다. 관리만 생각하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다면 깨끗한 환경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바로 세운다면 우리 삶의 질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Jeju City News: 2019 Korean Culture Festival, Je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other local events.

Seogwipo City News: Seogwipo Cultural Festival, Seogwip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other local events.

Jeju Agricultural and Livestock Market: Weekly market information, including dates, times, and locations.

Jeju Remodeling: Advertisement for remodeling servic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